

주일의말씀

우리는 사두가이파다



나경일 펠릭스 신부
만촌3동 주임

우리는 사두가이파다. 간단히 말하자면, 지금 이 유대 땅에서 제일 잘나가는 파위 집단에 속한 엘리트라는 말이다. 대제사장직을 독점하는 예루살렘의 귀족 제관 가문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우리는 로마제국과도 좋은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정경유착에 종교까지 버무려진 교묘하고도 튼실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예수라는 자가 얼마 전에 우리의 거룩한 기업 성전을 마구 뒤집어 놓았다. 하느님의 집을 더럽힌다며 성전상인들을 성전에서 쫓아내 버린 것이다. 그저 열심히 일하고 있던 우리 매장 직원들을 자기 맘대로 내쫓은 것이다. 세상에 이런 일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예수는 그 성전마저 곧 허물어질 것이라고 예언을 해버렸다. 다른 체인점도 없는데 본점이 무너지다니! 이런 유언비어를 퍼뜨리고도 저 사람은 무사하리라 생각하나? 그리고도 모자라 바로 그 성전 뜰에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인기절정의 신앙특강을 시리즈로 계속하고 있다. 이 예수라는 인물은 도저히 가만 놔두서는 안 될 존재이다.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 궁지에 몰아보고자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라는 문제로 올라미를 던져봤지만 아무것도 못 건지고 입 다물고 말았다. 그렇다고 그냥 물러설 수 없다. 연속 공격이 필요하다. 그래, 부활 문제로 공격하자! 우리는 오로지 현세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재물과 같이 확

실히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들이 우리에게서 모든 것이다. 부활이라니? 무슨 귀신 쫓나라까먹는 소리냐? 성경(우리는 모세오경만을 경전으로 인정한다)을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라! 부활의 '부' 자도 안 나온다. 다급한 와중에도 우리들 중 누군가가 아주 기가 막힌 질문을 던졌다. 자! 이제 어쩔 거냐? 그 여자는 저 세상에 가면 이제 누구의 아내일까? 으하하, 통쾌하다!

근데 예수 왈, 저 세상에는 시집가고 장가들고 뭐 그런 일 없단다. 그리고 죽은 이들이 되살아난다고 오경에 있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다고 한다.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신 분이 스스로를 '아브라함, 이사악, 야곱' (모두 죽은 우리 조상들이다)의 하느님이라 소개하셨으니, 이 분들은 살아 있다는 말이 되는데... 아! 이게 뭐란 말인가?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라 우길 수도 없고! 그렇게 훌륭해 보이던 올가미가 한 순간에 유치찬란해져 버렸다. 평소 우리 편이던 율법학자들까지 옆에서 "스승님, 빙고!"를 외치며 염장을 지른다. 또 한 번 크게 당했다. 어쩔 수 없다. 제거하자, 예수를!

이천 년 후, 나도 지금 성당은 다니지만 부활에 대해서는 솔직히 모르겠다. 그런 것 보다는 지금이 더 중요하다. 부유하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과 당장의 마음의 평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성당은 뭐 그런 것 얻자고 다니는 것 아닌가? 내 친구도 대충 그런 눈치인데... 그럼 우리도 사두가이파란 말인가? 대구주보

생명의말씀

하느님께서서는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루카20,38

2마카 7,1-2,9-14 2테살 2,16-3,5 루카 20,27-38

6. 대구교구의 탄생과 초대 교구장 드망즈 주교의 부임

문화홍보실

1911년 4월 8일은 우리에게 참으로 소중한 날입니다. 이 날이 바로 우리 교구가 탄생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비오 10세 교황님께서 대구대목구를 신설하시고 초대 교구장으로 드망즈 신부를 임명하시므로써, 이 지역이 처음으로 교구장 주교님을 모시게 된 것입니다. 교우들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지역 신자들이 뽕밭 대구역에 나와서 주교님을 모시고 행렬을 하는데, 그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났다고 합니다.

주교님을 모시게 된 것은 교우들로서는 참으로 기쁜 일이었지만, 신생 교구의 교구장이 되신 드망즈 주교님은 고민이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구의 기초를 세워야 하는데, 그야말로 맨주먹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제 양성을 위한 신학교와 주교관도 있어야 하고 주교좌성당도 증축해야 했지만, 임지로 떠나는 드망즈 주교님께 뭇 주교님은 “나뉘 줄 재산이 없으니 가난이나 함께 나누십시오.”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앞이 캄캄한 상황에서, 주교님께서는 부임 후 첫 번째 주일인 7월 2일에 성모님께 다 음과 같이 허원합니다.

“성자께서 당신 모친을 지상 은혜의 분배자로 삼으신 것을 생각하면서, 이 교구의 주보로 루르드의 성

모님을 모시기로 정합니다. 성모님, 이 교구가 커나갈 수 있도록 당신께서 이 교구의 재정을 맡아 주시기를 청합니다. 성모님께서 저희가 교구 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주교관과 신학교를 짓고 주교좌성당을 증축하도록 도와주시면, 주교관 대지의 가장 아름다운 곳에 루르드 성모동굴을 닮은 성모동굴을 지어 바치고 신자들이 끊임없이 순례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망즈 주교님의 사목 표어는 “신뢰하고 일하라 (Confide et Labora)”였습니다. 주님께 봉사하다 보면 재능 부족, 지원 부족, 이해 부족 등의 어려움으로 힘들거나 답답할 때가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당 일은 세속적인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아무리 돈이 있고 수단이 좋아도 다 쓸 데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천 명을 배불리 먹이셨을 때 재료로 쓰신 것은 어린아이가 바친 도시락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베드로처럼 “그것이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요한 6,9)하고 말하지만, 우리의 자그마한 봉헌이 주님 손에 들어갔다 나오면 많은 사람에게 은총이 되어 내리는 것입니다. 내가 바칠 수 있는 것이 보잘 것 없고 별 도움이 안 되어 보여도, 주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색(思索)에 대하여

박성규 엘리지오





오늘의 미사

연중 제32주일

입당성가

227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

화답송

◎ 주님, 깨어날 때 당신 모습에
흡족하리이다.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봉헌성가

218 주여 당신 종이 여기

영성체송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네.

파견성가

229 죽음에서 생명으로

영성의 향기

::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지혜

지금 여기, 바로 이 순간을 충실하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 신자에게는 물론이고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지나간 일에 붙들려 현재를 놓쳐 버리거나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상상으로 오늘을 허비한다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겠기 때문입니다. 복잡하고 바쁜 생활을 하는 요즘,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사는 지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에 치여 사는 현대인으로서 이것이 쉬운 주문이 아닙니다. 온갖 걱정거리를 잠시 떠나 조용한 곳으로 가서 내 삶을 정리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럴 여유가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일상사를 떠나 어디론가 훌쩍 떠나기는 어렵지만, 내 속으로 들어가 항상 거기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언제든지, 또 아무리 바쁜 사람이라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무실에서든, 차가 가득한 거리에서든, 주님께서 늘 내 안에 현존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가능합니다. 어떤 학자는 평화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전쟁터이고, 전쟁터라도 예수님께서 거기 계시면 평화 중에 있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마치 전쟁터 같은 바쁜 나날 속에서도 평화를 잃지 않으며, 무익한 염려에서 해방되어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 교구 사목국 권가타리나 수녀 -

짧은 글 - 깊은 생각

성공과 성취



한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시무룩한 표정으로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축구팀에서 열심히 하는데 칭찬은 딴 애가 다 받는 것 같아요. 재미없어서 이제 축구 그만 할래요.” 어머니는 아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애, 꼭 성공을 해야 재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니? 성공은 남이 칭찬을 해 주고 알아주어야 하는 건데, 그것도 짜릿하고 좋긴 하지만 성공보다 더 뿌듯한 것은 ‘성취’란다. 성취는 네가 열심히 노력했고 최선을 다 했다는 말이거든. 둘 다 할 수 있으면 그야 최고겠지. 하지만 성공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반면에 성취는 네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단다.” 우리는 때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사람들이 알아주고 칭찬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락가락하는 세상 사람들의 평판에 마음 쓰기보다는 하느님께서 알아주시는 것을 기뻐하는 편이 낫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을 다 아시는 하느님께서도 겉모양을 보지 않으시고 정성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 율겨온 글입니다 -

†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11.10(수)은故 박춘택(베드로) 신부
5주기입니다.

- 모임 / 행사 -

해평 철새도래지 순례 및 생명평화미사

- 일시: 11.8(월) 14:30
- 장소: 구미시 해평면 해평취수장앞 낙동강둑방

가톨릭운전기사 사도회 월례회

- 일시: 11.10(수) 14:00, 가톨릭교육원

제13회 대구대교구창작생활가 경연대회

- 일시: 11.13(토) 19:00
- 장소: 대구광역시 청소년 수련원
- 문의: 1대리구청 청년담당 426-7219
1대리구청 사무실 426-7200

제2회 성경암송발표대회

- (2011년 100주년 기념 축제 예선)
- 일시: 11.20(토), 21(일) 13:00~17:00
- 장소: 남산동 대신학원 대강당
- 문의: 성서사도직 담당 250-3082

세계 청년 대회 참가 신청

- 일시: 2011.8.11(목)~24(수)
- 장소: 스페인 마드리드
- 신청마감: 12.31(금)
- http://club.cyworld.com/2011wyd

- 성소 / 피정 -

샬트르 성바오로 수녀회 성소(이삭)모임, 고3피정

- 11월 이삭 모임: 11.28(일) 13:30
- ※매월 넷째 주일 13:30 이삭모임
- 고3 여학생 피정: 11.20(토)~21(일)
- 문의: 011-809-8973(홈페이지 참조)
- 장소: 샬트르 성바오로 수녀회 대구관구 본원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성소모임

- 일시: 매월 둘째주 토 15:00~18:00

- 장소: 부산 남천성당 앞 북카페
- 대상: 고등·대학생·일반, 문의: 02-744-4702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성소모임

- 일시: 매달 둘째주 토 14:00, 관덕정
- 문의: 011-9319-1690, 성소상담 언제나 환영

- 모집 / 교육 -

2011학년도 교구내 유치원 원아모집 안내

- 대구대교구 홈페이지(www.dgca.or.kr) 참조
- 시편성가연수(Sr.김정선),발성법(박재연) 회비:1만원

- 일시: 11.7(일) 15:00, 가톨릭음악원(255-4847)

2011학년도 호성초등학교 신입생 모집

- 전형일시: 11.15(월)~19(금) 09:00~16:30
- 자격: 2004.1.1(목)~12.31(금) 사이에 출생한 대구광역시 거주 아동
- 방법: 아동 및 학부모 면접 후 컴퓨터 추첨
- 문의: 636-1346(http://dg-hyoseong.es.kr)

11월 영여성경 공부반 모집

- 개강: 11.2(화) 10:00~12:00 (월2만원)
- 화: 코린토1서, 신명기/목: 마태오, 창세기
- 문의: 관덕정 254-0151/ 010-2578-5535

제97차 선택 주말

- 일시: 11.26(금)~28(일)
- 문의: 박수진 모니카 010-2566-0474
- ※ 자세한 내용은 대구 선택 카페 참조
http://cafe.daum.net/daeguchoice

보다더나는 혼인생활을위한 ME주말초대

- 대구283차: 11.26(금)19:00~28(일)18:00
- 장소: 한티피정의집(473-5712)

겨울방학 필리핀영어캠프(11.15마감)

- 일시: 1.9(일)~2.7(월) 4주간 (285만원)
- 대상: 초4~고3 남녀(비안 산 어거스틴학교)
- 문의: 010-9204-1262(sskyosa@hanmail.net)
- 주관: 성 아우구스티노수도회

2011(전기)인천가톨릭대학교대학원생모집

- 접수: 11.1(월)~19(금) (www.uway.com)
- 전공: 회화,그리스도교미술사,스테인드 글라스,이론,도시환경조각,문화예술기획,시각/실내환경/도시환경/전시디자인
- 문의: 032)830-7015(www.iccu.ac.kr)

통신으로배우는신학과정-신입생모집

- 가톨릭교리신학원통신대학교육부
- 원서접수: 11.8(월)~2011.2.11.(금)
- 대상: 세례받은 평신도와 수도자
- 내용: 신·구약성경 및 신학일반
- 문의: 02)745-8339(ci.catholic.ac.kr)

어르신 새로운 성경공부 봉사자교육

- 일시: 11.23(화)~24(수) 13:30~17:30
- 장소: 계산성당 1대리구청 1층, 마감: 11.18
- 주제: 성경말씀을 산 성인들된, 회비:3만원
- 접수: 426-7218, Fax) 254-2224
- 문의: 성바오로딸수도회 02)944-0819-24

제 37차 아일랜드 영어연수 모집

- 주관: 마신부님-아일랜드골롬반회
- 초·중·고: 1.8(토)~30(일), 3주
- ※ 정규학교 수업 및 홈스테이 이용
- 대,일반: 1.3(월)~2.13(일), 6주 또는 장기
- 문의: 그린피스 E&T 02)3446-4253

이집트·이스라엘 해외성지순례 안내

- 일정: 1.8(월)~17(수)
- 신청: 11.15(월)까지 선착순 30명
- 문의: 평신도신학교육원 660-5104

- 안 내 -

교구법원공시(253-9550)

아래 공시되는 분은 교구법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혼인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 성명: 김숙경(엘리사벳), 이찬성

미 사	일 시	장 소	미 사	일 시	장 소
1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11월 8일(월) 오전11시	계산주교좌성당	구미지역 군중후원회 미사	11월 8일(월) 오전11시	신평성당
2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11월 8일(월) 오전11시30분	2대리구청-범어성당	포항지역 밀알후원회 미사	11월 8일(월) 오전11시	죽도성당
3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11월 8일(월) 오전11시	3대리구청-월성성당	기독교단 월례미사	11월 9일(화) 오후2시	성모당
			해외선교후원회 월례미사	11월 11일(목) 오후2시	성모당

성모아이한의원

- 잦은감기(열, 비염, 천식, 중이염)
- 틱, ADHD, 식욕부진, 성장
- 난치성 아토피
- 언어(발달)장애, 자폐
- 대표원장 김 성 철 (비오)
- 지하철 2호선 성서공단역 8번 출구
- ☎ 592-1275, 593-1275

이연재 맥 의원

- (하지정맥류 전문병원)
- 원장: 이연재 (에릭)
- 홍부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 대한 정맥학회 이사
- 652-9777 www.meckclinic.com
- 서부정류장에서 남대구 IC 방향 200m

분도는 한 방울의 기름도 속이지 않습니다!



분|도|식|유

- 전화 한통하면 어느곳든 달려갑니다.
- ☎ 080-421-5151(무로전화)
- 424-2240, 743-1977, 957-9543



사회복지법인 서정길 대주교재단
데레사소비엔타

- 수익금 전액은 사회사업을 위해 사용됩니다.
- * 청교, 아채, 선어, 정육
- * 신선, 가공식품, 공식품, 생필품
- * 생활, 패션잡화, 수입주방, 수입가전
- 765-1500 (어린이화관맞은편)
- 대표이사 장영 일 (그리산도)신부



도우미 익스프레스

- 포장이사, 사무실이사, 일반이사
- 대표 양 말 순(루시아)
- 591-2424, 656-9911
- 010-2008-2329



라식,백내장수술전문
김기산안과

- Dr. Kim Ki San
- 김기산 안(안드레아)
- (전 동산의료원 안과과장)
- 반 월 당 대 구 학 원 9 층
- ☎ 257-8875 www.kisanlasik.co.kr

성가정을 위한 결혼 정보



성가정결혼상담소

- 진실한신자와의 만남의장
- 474-0025, 476-9275
- 가톨릭문화관 2층
- 남대구우체국 옆 교대지하철 입구



결혼상담
마리아 요셉 결혼이야기

- (마흔, 만혼, 재혼)
- 전국대표전화: 1566-6205
- 대구 - 070-8827-6207
- 부산 - 051)817-3887~8
- 서울 - 02)579-3889
- 02)338-0788
- http://mjms.co.kr